

카자흐스탄, 경제 개황

카자흐스탄¹⁾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여 시장경제로의 적극적인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CIS²⁾ 국가중 가장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면적은 272만km²로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와 함께 석유, 텅스텐, 우라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림 1 카자흐스탄 위치



- 1) 카자흐는 유량자, 모험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2)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2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12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그루지아로 구성되어 있다.

1. 주요 경제지표

카자흐스탄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석유 및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증대 그리고 개방적인 정책과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지사유화에 따른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경제성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은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 신축과 건물의 부속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10년간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명목)	16,639.9	22,135.4	16,871.7	18,292.4	22,152.7	24,636.6	29,748.6
- 농업 GDP	2,050.9	1,896.6	1,668.3	1,483.9	1,932.7	1,969.6	2,170.1
- 1인당 GDP(달러)	1,052	1,469	1,130	1,229	1,491	1,658	1,995
- GDP 성장율	-8.2	-1.7	2.5	9.9	13.5	9.9	9.0
환율(달러)	60.95	78.30	119.52	142.13	146.74	153.28	149.58
외환보유고	1,659.9	1,964.8	2,002.0	2,095.7	2,507.9	3,140.8	4,962.1
총외채 (GDP대비)	5,779.2* (27.8)	9,921.1 (45.0)	12,062.8 (71.2)	12,327.9 (70.8)	15,101.4 (68.3)	18,042.4 (73.9)	22,859.0 (76.6)
외국인직접투자	1,673.7*	1,233.2	1,849.9	2,098.2	3,997.7	4,074	4,595.7
인플레이션	39.9*	7.1	8.3	13.2	6.4	5.9	6.5
실업율	4.2*	3.7	3.9	3.7	2.9	2.6	1.8

주 : *는 1996년 자료임.

자료 : ADB(Asian Development Bank), World Bank, 2004.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4.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 제도정착과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외국의 투자확대 등으로 2000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2003년 국내총생산액은 297억달러이고, 농업생산액은 2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1인당 GDP는 1,995달러로 1995년 1,052달러 대비 약 2배정도 성장하였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1999년을 기점으로 2000년 9.9%에서 2003년 9.0%로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내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외국의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외환보유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 20억달러에서 2003년 50억달러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의 전환에 따른 총외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지하자원으로는 원유 이외 우라늄, 금, 구리, 망간, 철광석 등도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아연, 납,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유, 가스 등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1999년 12억달러에서 2003년 46억달러로 급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액이 1993년~2003년까지 약 238억달러이고, 대중양아시아 외국인투자액의 약 80% 정도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액은 약 53억불(2003년 6월)이고, 2004년 1사분기 동안에도 18억불의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실업률은 1.8%, 인플레이션은 6.5%를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은 카자흐스탄

국내경제의 성장과 함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대미달러화에 대한 텡게화의 평균 교환비율은 1999년 119.52에서 2003년 149.58로 상승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별 GDP 구성현황을 보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고도 경제성장세의 유지로 농업의 GDP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 광공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1995년 12.3%, 2000년 8.1% 그리고 2003년 7.3%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광공업의 GDP 비중은 1999년 33.0%, 2001년 34.3% 그리고 2003년 35.6%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2003년 57.1%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거시경제 및 농업생산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과도기적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1999년부터 GDP 성장률은 크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	12.3	8.6	9.9	8.1	8.7	8.0	7.3
광공업	30.0	29.3	33.0	37.8	34.3	35.8	35.6
서비스업	57.7	62.1	57.1	54.1	57.0	56.2	57.1

자료 : ADB, 2004.

표 3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	-23.7	-18.5	22.7	-3.7	15.4	3.3	3.2
광공업	-9.9	1.4	2.7	15.6	15.7	12.6	8.6
서비스업	-2.9	0.0	-0.7	9.4	11.8	9.4	10.2

자료 : ADB, 2004.

농업생산이 실질적으로 증가세를 회복한 것은 2000년의 흉작을 어느 정도 회복한 2001년부터이다. 체제전환 과정 속에서 농업부문도 점진적인 조정과정을 통해서 침체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카자흐스탄의 산업부문별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외국의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액 증가로 고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부문은 2002년 3.3%, 2003년 3.2%의 성장을 하고있고, 광공업부문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2000년 15.6%, 2002년 12.6% 그리고 2003년은 8.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약 10%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수출품목인 원유, 가스, 비철금속 등의 수출 증가와 함께 대외 투자자본의 증가로 소규모 제조업에서 생산된 일부 소비재 및 식료품을 인접한 CIS국가에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대부분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2000년 카스피해 유전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원유 및 비철금속의 수출 확대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카자흐스탄의 무역수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 버뮤다, 중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고, 주요 수입대상국은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영국 등이다.

체제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경기침체를 회복하면서 1999년 총무역액은 116억달러, 2000년 142억달러, 2003년 19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수출액의 변화를 보면 1999년 60억달러에서 2003년 116억달러로 약 2배정도 성장하였으며, 수입은 1999년 56억달러에서 2003년 74억달러로 약 30%정도 증가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무역수지는 수출의 급증으로 1999년부터 최근까지 흑자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 3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2001년 23억달러, 2003년 4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 대비

2003년 무역수지 흑자폭은 약 14배 정도에 이른다.

표 4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무역액	12,198.4	12,542.1	11,633.3	14,245.6	15,032.6	16,199.6	18,994.3
수출액	6,291.7	5,870.6	5,988.5	9,193.5	8,668.8	9,709.1	11,592.0
수입액	6,626.7	6,671.5	5,644.8	5,052.1	6,363.2	6,490.5	7,402.3
무역수지	-335.0	-800.9	343.7	4,087.4	2,305.6	3,218.6	4,189.7

주 : *는 1996년 자료임.

자료 : ADB(Asian Development Bank), World Bank, 2004.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카자흐스탄 현황'. 2004.

2. 투자 및 대외협력

2.1. 투자유치 정책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산업발전을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지하자원 중에서 텅스텐, 우라늄, 납 등은 세계 1위 매장량, 크롬, 은, 아연은 세계 2위 매장량, 석유는 세계 5위 매장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시장경제 체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환경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한 내용은 첫째, 투자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 둘째, 외국 자산의 적절한 보호, 그리고 외국 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해외 송금의

자유를 보장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특혜지원은 새로운 생산시설 확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시설 정비, 고용유지 및 확대 등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투자에 대한 특혜지원 내용으로는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특혜, 관세 면제, 국가의 현물 제공 등이 있다.

세제상의 특혜는 투자에 대한 법인세, 토지세, 자산세 등의 면제 등을 의미하고, 고정자산 형식으로 투자된 금액의 규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가 허용되며 최장 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국가의 현물제공은 토지, 건물, 설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제공된 현물의 가치는 투자자의 투자금액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관세면제는 투자를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설비, 원료 등을 수입할 경우 특혜가 허용된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급증하고 있으며, 1996년 17억달러, 1998년 37억달러, 2000년 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석유와 가스부문의 투자액이 가장 높다.

표 5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 개발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석유.가스	9.5	14.8	20.3	21.3	29.9
석 탄	0.4	4.4	5.0	2.2	1.8
구 리	2.3	2.9	2.7	2.1	2.1
철. 망 간	2.0	3.6	2.6	1.1	1.6
금	1.0	1.0	0.7	0.4	0.6
크 롬	0.2	0.2	0.6	0.4	0.5
우 라 늑	0.2	0.2	0.3	0.3	0.3
기 타	2.1	4.1	4.5	3.0	3.6
총 계	17.7	31.2	36.7	30.8	40.4

자료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20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타무역관, 2004.

2.2. 대외 경제협력 현황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편리성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경제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역내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경제·군사적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독립국가의 위상을 견지하는 실리주의 노선을 걷고 있고, 미국, EU 등과는 양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시장경제 체제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석유, 가스, 비철금속 등)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는 원유, 가스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하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연계한 경제협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4개국간 단일경제 구성을 추진하는 등 CIS 국가들과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을 보면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년 체결하여 현재 카스피해 해상유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 광업진흥공사와 카자흐스탄과의 광물탐사 프로젝트를 통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광물부존구역에 대한 공동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국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자력협력협정·항공협정·정보통신협력약정 등의 체결을 위해 현재 협의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가입 기준에 부합되도록 경제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있고, 정부개입 최소화, 지적재산권 분야 등의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다양하며 평균 수입관세율은 약 9%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및 주변

CIS국가(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와는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3 한·카자흐스탄 관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액은 1997년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였다. 한국의 외환위기로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액이 급감하였지만,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와 경제발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양국의 교역규모는 산업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으로 확대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 및 수출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와 낙후된 제조업 현실 속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전제품, 산업용 기기, 플라스틱 합성수지, 가구류, 자동차 등의 수출잠재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3.1. 한·카자흐스탄 경제관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규모는 1999년 이후 최근까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주춤했던 양국의 교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의 교역수지는 1998년 7,3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3,300만달러)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카자흐스탄의 수출은 전자제품이 주도를 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수입은 2001년을 기점으로 철강,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와 자국의 제조업 기반 취약성으로 한국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로 확충된 생산설비에 기인한 한국의 원자재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액 1억 2,600만달러에서 산업용전자제품이 3,490만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반면 수입액 7,160만달러에서 철강제품이 4,690만달러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표 6 한·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교역규모	230,031	175,623	134,882	107,963	131,766	164,139	197,780	370,233
수출	105,368	922,123	104,016	56,606	82,385	108,003	126,110	217,174
수입	124,663	83,491	30,866	51,357	49,381	56,136	71,670	153,059
무역수지	-19,295	8,632	73,150	5,249	33,004	51,867	54,440	64,115

자료 : 주카자흐대사관, '카자흐스탄 현황', 20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타무역관, 2004.

3. 경제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분야 및 지하자원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05년에도 고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5년도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률은 9% 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4년 전망치인 9.5%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국이나 다른 CIS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4년과 비교해 2005년을 다소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 국제유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둘째, 인플레이션에 따른 카자흐스탄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의 운용 때문이다.

거시경제 안정화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업 및 산업 전반의 다각화 노력으로 2005년도 고용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발달에 따른 고용시장의 활성화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수요 및 수입수요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표 7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달러

구분	2004	2005	2010	2001~2010 연평균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9.5	9.0	-	7%
인플레이션율	6.5	6.0	-	
1인당 GDP*	-	2,064	3,285	

주 : *는 “Eurasia Economic Summit”에서 제시된 경제성장 전망자료 인용(2002.4).
 자료 : ADB., 주카자흐대사관, ‘카자흐스탄 현황’, 200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알마타무역관, 2004.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2004년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원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증가와 조세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카자흐스탄의 재정 및 금융정책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보면 GDP성장률은 2001~10년 연평균 약 7%로 전망되고 있고, 1인당 GDP는 2005년 약 2,000달러, 2010년 약 3,00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30년까지 장기 종합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까지 2000년 기준 GDP(183억달러)의 약 3.5배 증가, 생산성 2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하자원(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정유시설 확충) 개발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다변화 정책을 통한 제조업 기반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고, 공산품 수출주도형 경제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한국농촌경제연구원)